

## 金日宇,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신서원, 2000.7)

이 병 희(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I.

고려시대의 특정 지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용이하지 않다. 자료가 단편적으로 남아 있고, 그것도 중앙·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 자체의 이해를 위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자료가 다소 전하는 특정 주제에 한정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시대는 지방마다 역사가 개성을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5도와 양계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 행정단위도 목·주·부·군·현과 향·부곡·소·장·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단위마다 역사 전개 양상이 상이하다.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개성을 갖는 역사를 보이고 있다. 고려에 편입되는 과정도 그러하고, 산업 활동의 측면에서도 육지부와 다르며, 또한 고려후기의 역사경험의 내용도 색다른 측면이 있다.

개성을 갖는 제주지방의 역사가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金日宇, 신서원, 2000.7)로 출간된 것은 이런 면에서 주목되고,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저자 김일우선생은 고려시대 국가의 지방지배체계 해명에 힘써 온 연구자 이기에 지방행정 편제의 이해에서 남다른 높은 식견을 견지하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탐라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저서는 제주의 일간지 『제민일보』에 1999년 1년 동안 연재한 글을 보완해 장과 절로 나누어 재편집하고, 근거사료와 참고문헌을 덧붙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제주를 통해서 본 고려, 고려를 통해서 본 제주”라는 연구 방향

을 설정해서, 국가와 지방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지역사로서의 제주역사 연구만이 아니고, 고려시대 국가 전체사 속에서 제주역사의 이해, 더 나아가 제주 역사연구를 통한 고려시대 국가 전체사의 보완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 II.

저자는 고려시대 제주의 역사가 고려건국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체사의 추이와 깊은 관련을 맺어 전개되었다는 시각에서 저서 전체 내용을 구성하였다. 책의 차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I. 고려의 건국과 탐라의 정치-사회적 위상

1. 후삼국시대의 전개와 왕건의 등장
2. 고려의 지방지배 형태
3. 탐라에 대한 태조대 조처의 의미
4. 탐라의 첫 지방행정단위 형태
  - 1) 고려의 지방행정단위 형태와 구조
  - 2) 지방행정단위 형태로서 島의 존재
  - 3) 島 행정단위 형태의 탐라
    - 보론 : 1. 울릉도와 탐라의 군현 설치
    - 보론 : 2. 고려시대 외관파견과 탐라
5. 탐라민의 정치 사회적 위상
  - 1) 중앙 관인사회 진출제약과 그 의미
    - 보론 : 제술과의 절차상 응시자격
  - 2) 중앙 관인사회 진출과 그 의미

- ▣ 보론 : 재상의 서열구조와 제주출신의 첫 수상 취임

## Ⅱ. 고려시대 탐라민의 생업활동과 신앙

1. 탐라의 행정단위 변천과 주민분포상
  - ▣ 보론 : 제주도 사회의 형성연원과 그 형태
2. 농경
  - ▣ 보론 : 제주도 지역의 철제농기구와 우경 이용 시기
3. 수산업
  - ▣ 보론 : 고려시대 이전 탐라민의 해상교역과 그 형태
4. 해상업
  - ▣ 보론 : 고려 때 탐라와 한반도 육지부와의 바닷길
5. 목축업
  - 1) 우마사육의 성행
    - ▣ 보론 : 제주도 목축과 수렵의 내력
  - 2) 우마 사육방식과 국가 관할 형태
    - ▣ 보론 : 제주도의 천연적 방목지 우마 사육방식
  - 3) 우마 사육규모의 확대
    - ▣ 보론 : 제주조랑말의 내력
6. 신앙
  - ▣ 보론 : 한라산과 국가제사

## Ⅲ. 탐라의 행정단위변화와 외관의 행정

1. 탐라현 시기
  - ▣ 보론 : 현령파견 이전 탐라에 온 중앙관인
2. 탐라군과 제주시기
  - ▣ 보론 : 1. 탐라현의 탐라군 개편과 그 의미

- 보론 : 2. 제주호칭의 등장과 그 의미
3. 제주 시기
- 보론 : 제주로의 정부 재천 시도

#### IV. 원 간섭기와 공민왕대 이후의 탐라

##### 1. 원 직할령 시기

- 1) 탐라의 원 직할령 편입과 원의 경영
  - 보론 : 원 간섭기와 탐라
- 2) 탐라주둔군의 운영과 그 의미
  - 보론 : 탐라지역에 설치한 원의 관부
- 3) 원의 탐라물자 수탈경영과 탐라민의 생활
  - 보론 : 탐라지역에 설치한 원관부의 관리

##### 2. 고려와 원 이중귀속기

- 1) 탐라의 고려환속과 그 의미
  - 보론 : 제주목의 설치
- 2) 탐라지역 설치관부의 이원화
  - 보론 : 탐라지역 행정단위의 분화와 확대
- 3) 탐라사회와 공민왕의 반원정책
  - 보론 : 탐라의 유배인과 좌천관리

##### 3. 목호와 고려의 충돌기

- 보론 : 탐라만호부의 폐쇄

##### 4. 목호의 최후와 고려 재귀속기

- 보론 : 탐라목호와 최영장군의 결전

차례를 통해 볼 때 국가 전체사와 관련해 제주의 역사를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 · III · IV장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주의 역사를 기술하

고 있다. II 장은 ‘탐라민의 생업활동과 신앙’으로 되어 있어, 생활사로서 탐라민의 모습을 해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내용구성에서 여러 개의 보론이 편성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보론은 말 그대로 본문내용의 이해를 돕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사의 내용을 제시해 본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경우도 있고, 고려이전 시기의 내용을 제시해 고려시대의 이해를 돕는 예도 있으며, 간단히 언급한 내용을 詳述하는 수도 있다. 많은 보론의 제시는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I 장은 고려전기 제주지방 행정편제의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탐라가 고려정부의 행정적 지배를 받는 시점은 태조대부터이다. 태조 8년(925) 탐라에서 貢物을 바치고 있는데, 왕건은 그 이전부터 이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고려국가는 탐라를 島로 편제하고서 지배하였다. 현종 2년(1011) 국가에서 朱記를 내려주었다. 주기를 지니게 됨에 따라 군현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지역으로 승격되었지만, 실질적 행정단위는 여전히 島였다. 숙종 10년(1105)에 탐라군이라는 군현명이 정해질 때까지 행정단위 명칭은 毛羅島였다. 도형태의 지방행정단위로 설정된 것은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장기간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탐라국이 존재한 사실이 전제되었다. 도에는 旬當使가 설치되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거둔 세금을 개경으로 수송하였다. 구당사를 통한 탐라지배는 상주외관 현령이 파견되는 의종대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도는 所와 흡사하여 군현에 비해 법제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위상이 낮았으며, 국가에 대해 특정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숙종대에 탐라군으로 설정되었지만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는데, 다른 속군·속현과 달리, 주현의 위상을 가진 군현처럼 중앙정부와 직결되었다. 의종대에 이르러 탐라현으로 개편되어 외관이 두어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주현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탐라출신으로 고려조정에 진출해 벼슬을 지닌 인물로 高維가 확인되며, 고유의 아들 高兆基는 의종 3년(1149) 수상의 지위에

까지 오르고 있다.

탐라가 도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의 제시가 특기할 만하며, 행정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탐라의 이해를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

II 장에서는 제주 지방의 생업활동과 신앙을 서술하였다. 의종 7년(1153) 탐라현으로 명칭이 바뀌고 외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며, 희종 7년(1211) 歸德縣이 생겨나 탐라현의 속현이 되었다. 고종 3년(1216) 보다 앞선 시기에 탐라현에서 탐라군으로 바뀌었으며, 7년 쯤 뒤에 濟州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官格이 상승한 것을 의미하였다. 원종 14년(1273)에 원의 직할령이 되었다가 충렬왕 20년(1294) 고려가 탐라를 돌려받았으며, 충렬왕 26년(1300) 14개 현이 새로이 생겨나 제주와 15개 현이 주현·속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속현에는 규모의 대소에 따라 1~4인의 향리층이 두어졌다. 고려시대 탐라민의 수는 적었을 경우에는 1만 5천 명 내외였고, 많아졌을 때에는 3만명 내외에 달하였다.

고려시대 탐라에서 농작물로 보리 콩 조 팥 메밀 삼 등이 재배되었다. 벼는 거의 재배되지 않았다. 토성이 뜨고 건조하기 때문에 종자 안착이 잘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갈아먹는 땅에 소와 말을 풀어놓아 밟게 하였다. 또한 휴한농작법 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가축분을 시비로 이용하였으며, 火耕 농작법도 시행되었고, 牛耕도 널리 행해졌다. 橘은 탐라의 특산물로서 의종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貢賦로서 일정량을 중앙에 납부하였다.

수산물은 고려시대 탐라민의 식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거뒀들인 수산물로는 전복 소라 조개 거북 오징어 멸치 옥도미 갈치 고등어 등의 어패류와, 미역 김 모자반 우뚝가사리 툇 파래 등의 해조류가 있었다. 수산물은 탐라민의 중요한 먹거리였으며, 발거름이나 가축의 먹이에 충당하였고, 중앙에 상납하거나 교역의 물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상업을 장려하였기에 탐라민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외부교역을 전개하였다. 탐라인의 표류가 상당히 많았던 데서, 당시 해상활동이 매우 활

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 때 활발히 이용된 포구로는 관포 애월포 별도포가 대표적이며, 육지부로 갈 때는 해남 나주 강진 개령지역으로 가 닿았다. 국가의례에 다수의 탐라민이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방물을 바친 뒤 개령시장으로 가서 교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거래를 통해 철제생활도구, 도기와 자기, 놋쇠, 쌀, 소금, 약재, 책, 비단 등을 들여왔으며, 갖고 나간 것으로는 생선포, 젓갈, 말리거나 절인 생선, 전복, 소라, 미역, 김, 진주, 거북과 소라의 껍데기, 우황·우각·우피, 비자 등의 특용작물, 동물가죽, 말과 양 등이었다.

목축업은 고려초부터 국가 차원에서 우마사육이 이루어져 성행하였는데, 충렬왕 2년(1276) 원이 水山坪 지역에 목마장을 설치해 우마를 방목하기 시작한 이후, 우마 사육이 더욱 확대되었다. 탐라목장의 우마는 阿慕에 배속된 몽고족 하치(合赤, 牧胡)가 관리하였다. 하치는 목초가 무성하게 나는 지역을 찾아 우마 등을 몰고 다니며 방목하였다. 탐라민은 말이 증대하자 막대한 양에 달하는 월동사료를 강제적으로 대는 고충을 겪었다. 원지배기 말은 2만~3만 필 정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조랑말은 5세기 이전에 들어온 과하마가 이후 이곳에 들어온 몽고말과 서역마 등의 호마와 교접해 생겨난 혼혈마종인데, 고려전기 이전부터 있었고, 원지배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앙면에서는 탐라지역이 육지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탐라의 한라산신은 祀典에 올려져 국가 제사가 거행되었다. 불교는 고려시대에 널리 유포되었는데, 확인되는 사찰로는 수정사 묘련사 서천암 보문사 법화사 원당사가 있다.

II 장에서는 육지부와 색다른 생활을 했던 탐라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타지방의 연구에서도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III 장에서는 무인집권기 제주지방의 역사를 다루었다. 탐라지역은 희종 7년(1211) 귀덕현이 생겨나 주현인 탐라현의 속현이 되었으며, 고종 3년(1216) 보다 앞선 시기에 탐라현이 탐라군으로 개편되었으며, 고종 10년(1223) 경

읍호가 개편되어 제주로 불리었다. 郡에서 州로의 명칭변화는 승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육지부의 다른 주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점, 국가의 지방 지배에 참여한 성주와 왕자 등과 같은 토착세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희유한 토착세력을 통해 방물수취와 같은 지방지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꾀하려고 했던 것도 배경이 되었다.

무신정권기에는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탐라 외관의 가렴주구가 더욱 심해지면서 크고 작은 봉기가 몇 차례 일어났다. 무신집권기 탐라에 와 있는 수령으로는 朴文備 崔璘 金坵 崔滋 등이 확인된다. 김구와 최자의 부임은 제주의 학문 발달에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구는 밭에 경계가 없기에 토호세력이 힘없는 서민의 밭을 잠식 경작해 그 소출을 먹는 폐단을 보고서, 밭에 돌담을 쌓게 하여 각자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폐단을 막았다.

육지부를 휩쓸었던 몽고군은 제주를 침략하지는 않았다. 원종 14년(1273) 이전까지 고려 말 수요의 상당량을 제주 납세 말로 충당하였다. 당시 말은 탐관오리 외관이 자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축이었다. 무신집권 말기에 무신들은 강화도를 버리고 제주도로 천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IV장에서는 원의 간섭기와 공민왕대 이후 반원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의 제주 역사를 정리하였다. 원은 삼별초군을 진압한 뒤,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일찍부터 눈독을 들였던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 경영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처음에 원은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였으며, 충렬왕 원년(1275) 무렵 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개편되어 있었다. 군사적 임무가 줄어 행정적 임무도 수행하는 총관부로 바뀐 것이다. 충렬왕 10년에는 耽羅國安撫司로 개편하여 군정적 성격의 행정을 펼쳤다. 충렬왕 20년 고려는 원으로부터 탐라를 환속받았고, 21년에는 濟州로 부르면서 행정단위를 濟州牧으로 승격시켜 높은 관품의 수령과 많은 수의 외관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26년에는 제주목과 15개 군현으로 탐라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는 이전에 비해 규모가 커진 탐라사회에 대한 경제적 수취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한 조치였다. 그러나 바로

원이 탐라총관부를 설치함으로써 다시 원의 직할령이 되었다. 27년에는 耽羅軍民萬戶府로 개편하였다. 이것은 공민왕 5년(1356)에 이르러 폐쇄되었다.

원은 탐라에 있던 관부에 최고책임자를 직접 파견하여 탐라의 군정과 민정을 모두 관할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제주의 토착세력을 屬官으로 기용해 탐라 지배에 참여시켰다. 속관층은 원의 탐라 지배를 가능케 한 실무집단이었다. 원은 탐라에서 각종 물자를 수탈하였다. 毛施布 白紵 東紵布 眞珠 등을 거두어 갔고, 선박제조를 위해 다량의 목재를 수탈하였으며, 그리고 말을 취해 갔다. 원이 탐라에서 취한 방물은 전라도 연안지역에 닿은 뒤, 연안을 따라 압록강 입구까지 이른 다음, 황해를 거쳐 燕京지역에 수송되거나 혹은 육로를 따라 遼陽지역으로 수송되었다. 원의 이러한 수탈은 탐라민의 생활을 고달프게 하여 원지배에 대한 불만이 커졌으며, 그러한 수탈을 돕는 토착세력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충렬왕 31년 이후 탐라만호부·제주목 양부 관리가 동시에 파견됨으로써 탐라는 고려와 원에 이중으로 귀속되어, 탐라민은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속관인 토착세력으로부터도 수탈을 당해 탐라민은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탐라에는 하치는 물론 군인과 죄수 등 다수의 원나라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들 몽고족 상당수는 탐라여자와 결혼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탐라민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半몽고족화된 탐라민이 점차 증가하였다. 탐라지역 성씨 가운데 원나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여럿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탐라는 고려는 물론 원나라도 유배지로 사용하였으며, 명에서도 유배지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좌천되어 내려온 인물도 있었다.

공민왕 5년(1356)에 고려가 反元정책을 추진하면서, 탐라 사회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몽고족 牧胡와 고려는 충돌하게 되었다. 반원정책의 추진 여하에 따라, 국제 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고려와 목호세력은 수차례 충돌하면서, 고려에서 보낸 관리가 살해당하고, 탐라의 관할 주도권 향방도 양자 사이에 몇 차례 오고 갔다. 마침내 공민왕 23년 목호세력과 고려의

충들은 양자의 총력전으로 전개되었다. 고려에서는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출정군 25,605명, 전함 314척에 이르는 대군을 출동시켰다. 처음 출정군은 목호의 공격으로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전세를 뒤집은 뒤 끝까지 추적해 목호세력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기의 움직임이 있었다. 우왕 12년(1386) 토착세력의 자제를 불러들여 회유하고, 다음해에 성주의 아들 高鳳禮를 데려와 벼슬을 주는 등의 노력이 있자, 이후 탐라는 반기를 들지 않았다. 최영의 목호세력 평정이 있던 뒤에 명은 탐라말을 계속 가져 갔다. 우왕 5년(1379)에서 공양왕 4년(1392)까지 명에 바쳐진 약 3만 필의 말 가운데 2만 필 이상이 탐라말이었다.

### III.

이 저서는 고려시대 종합적인 지방사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사 연구는 일부의 소재만이 대상이 되어 왔다. 향도, 토성과 출신인물, 지방행정제도, 신앙 등이 대표적인 주제였다. 특정 지방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른 지방의 경우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면, 고려시대 지방사를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관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자칫 국가 전체의 역사가 간과되어 이해를 잘못하는 수도 없지 않은데, 이 저서는 국가 전체사를 염두에 두면서 제주지방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 그러한 위험·단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주된 연구주제가 국가의 지방지배체계가기에, 제주도의 행정제도 변화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제주도의 행정편제의 독자성, 그리고 국가 전체의 동향과 유기적인 관련의 파악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의 설정은 다른 지방의 연구에서도 참작할 사항이다. 농업이나 목축업 해상업 신앙 등 생활과 관련한 서술은, 지방사의 서술에서 필수적인데 매우 소홀히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방의 역사를 정리할 때, 내용요소로 반드시 추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서술의 용어가 평이한 점도 돋보인다. 신문에 연재된 것을 저서의 형태로 발간했기에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점, 내용구성의 확대를 꾀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전체사를 고려한 점도 장점이다.

#### IV.

특정시기 전체 역사를 제시한 것이기에 아쉬운 점,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도 없지 않다. 우선 중앙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은 좋으나, 제주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더 풍부했으면 한다. 행정제도의 변화는 제주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그 기반이 되는 제주도 자체에 대한 내용이 좀더 자세했으면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토착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세종실록지리지』에 토성 등의 성씨가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토착세력과 관련지워 검토하면 토착세력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토착세력으로 자주 언급되는 屋主·王子 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 성주·왕자 등 토착세력과 일반민의 관계도 부분적으로 언급되고는 있으나, 좀더 천착되었으면 한다.

탐라지역은 고려시대 교역로상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그 점이 좀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농업경영상의 차이, 원의 영향, 목호의 실체, 탐

라인의 구체적인 부담 등도 좀더 부각되었으면 고려시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전체사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제주도 내의 지역간 차별성·편차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산업활동에서, 수탈의 정도에서 지역간의 차이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삼별초의 항전과 패배가 제주도와 관련되어 갖는 의의가 매우 클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점은 아쉽다. 비슷한 내용이 중복된 경우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다소 조정되었으면 한다.

지리적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16개 군현의 현위치를 추적해, 당시 촌락의 경관·입지를 재구성해 보면, 당시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거지역의 특징,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상당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방사 연구에서 학제간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겠다.

독자가 모두 제주민이 아닐진데, 제주도 지도를 부록이나 앞부분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급적 고려시대의 역사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도의 제시가 요망된다. 그리고 年表도 제시되었으면 한다. 선후 관계가 뒤섞여 서술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는데, 연표가 있으면 그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일목요연하게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제주 지방이 고려의 전체 역사에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고려 역사에 기여한 점도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육지부와의 차별성은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앙이나 생업활동의 내용은 물론 지방사회의 권력관계, 민인들의 동향, 고려초에서 말기에 이르는 시기 탐라의 발전과정 등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자가 본서를 보고서 몇가지 요망사항을 제시한 것인데, 그 중에는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고, 일부러 생략한 것도 있어 보인다. 탐라사 전체가 체계적·종합적으로 해명되어, '탐라사 연구'가 아닌 '탐라사'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인 저서가 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